

# 유럽 - 아시아 특허정보 컨퍼런스 참관기



조사조정팀  
정인기

## >> 특허정보 “검색”을 넘어 “분석”의 시대로 <<

### EAPIC란?

유럽-아시아 특허정보 컨퍼런스(EAPIC<sup>1</sup>) 이하 컨퍼런스는 싱가포르특허청(IPOS<sup>2</sup>)과 유럽특허청(EPO<sup>3</sup>)이 주최하는 특허정보 컨퍼런스로서, 아시아 특허정보 전문가를 위한 최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특허정보 활용도구와 모델을 이용자에게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특허정보 상품과 서비스의 활용을 증진하고 특허정보 제공업체 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있다.

### 컨퍼런스를 개최한 싱가포르는?

이번 컨퍼런스는 2004년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싱가포르<sup>4</sup>(685.4km<sup>2</sup>)는 서울(605.5km<sup>2</sup>)보다 조금 넓은 면적을 가진 도시국가로서 인구는 2002년 현재 400만명 정도(서울은 2003년 현재 약 1000만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현재 2만불(한국 2002년 현재 약 1만불)이 넘는다. 인종은 중국계 약 77%, 말레이계 약 14%, 인도계 약 8%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는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듯 한국보다 별반 나을게 없는 환경에서 그들의 성장 저력이 단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역과 관광산업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 2004년 컨퍼런스 참가 이유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유는 각국의 특허청 및 업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을 홍보하는데 있었다. 한국특허청에서도 참가하였는데 정보개발 담당관실에서 부서장으로 재임하는 김태만 과장이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한국 특허정보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4년간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하다가 2002년 이후 특허정보 발굴 및 분석을 통한 특허정보의 활용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허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획득하고, 특허정보 이용시 유의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것은 국제적인 동향을 통해 의미 있는 특허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 컨퍼런스를 주최한 IPOS가 바라는 것은?

필자는 2002년에도 본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그 당시 싱가포르가 이러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발표내용 중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싱가포르 특허청이 “아시아 특허정보의 Hub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었다.

私見으로는 특허정보의 선진국인 일본 및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의 의도가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특허청과 협

1) EAPIC(Europe-Asia Patent Information Conference) : 유럽-아시아 특허정보 컨퍼런스

2)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 싱가포르 특허청

3) EPO(European Patent Office) : 유럽특허청

4) 출처 : 주싱가포르 대사관, [http://www.koreaembassy.org.sg/k\\_sumsing.html](http://www.koreaembassy.org.sg/k_sumsing.html)

조하여 특허정보의 Hub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 2002년과 2004년 컨퍼런스를 비교해 보면?

2002년과 2004년에 개최된 각각의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2년과 2004년 컨퍼런스의 주요특징 비교]

구 분	2002년 컨퍼런스	2004년 컨퍼런스
주요 참가 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이하 특허청 생략), 유럽, 중국, WIPO,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오스트리아 등	싱가포르, 유럽, 한국, 중국 등
주요 참가 기관	한국특허정보원, JOUVE, Derwent, Micropatent, PATOLIS, Hitachi, Fujitsu, Delphion, WISDOMAIN 등 24개 기관	ECMS, Thomson Scientific, DIALOG, WIPS, JOUVE, CAS 등 12개 기관
참석자수	250~300명	100여 명
한국특허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POnet 시스템 소개</li> <li>• KPA 서지시스템 소개</li> <li>• Patent mapping 소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및 민간특허업계의 역할을 통한 국내 특허정보보급 체계 설명(인터넷 상에서)</li> </ul>
한국특허정보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특허정보원 서비스 내용 소개 및 홍보</li> <li>• 특허업체동향 파악</li> <li>• 각국 특허청의 특허정책 및 전략관련 정보 수집</li> <li>• 특허정보 DB사업 및 데이터 가공판매 동향 파악</li> </ul>	좌동
컨퍼런스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 특허청의 정책소개</li> <li>• 각국 특허정보의 통합과 공유</li> <li>• 무료 특허검색시스템 구축 등</li> </ul>	특허정보 분석방법 논의 활발
컨퍼런스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	특허정책, 특허전략, 특허정보 통합과 공유, 무료 검색, 시스템 구축, 특허정보 Hub, 인터넷 서비스, 특허협력, 온라인 서지 서비스, 특허제도	특허정보, Patent mining, mapping, 검색도구, 검색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 tech mining, market mining, 가치발굴, 협력자 발견, 장력생성, 특허정보 분석방법, Patinformatics, 특허 포드폴리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컨퍼런스는 규모면에서는 2002년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관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각국 특허청의 정책

[2002년 특허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종안 과장 발표 모습]



소개 및 검색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많았던 2002년 컨퍼런스에 비해 2004년에는 특허정보의 발굴 및 분석에 대한 설명에 많은 기관이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특허청 발표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정보기획담당관실에 재임하는 김종안 과장이 KIPOnet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KPA(한국특허 영문초록)가 인터넷상에서 영문으로 무료 제공된다고 소개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2004년에는 정보개발담당관실에 재임하는 김태만 과장이 한국의 특허정보보급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특허정보원 및 민간업체의 역할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었다.

2002년 컨퍼런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각국 특허청의 정책소개 및 진행방향에 대한 소개, 둘째 중소기업 및 대학의 바람직한 특허전략 수립 제시, 셋째 특허업계의 국제적인 추세인 특허정보의 통합과 공유,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특허검색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노력(특히 영문제공), 다섯째 싱가포르의 지적재산 정보의 허브(Hub)구현을 위한 방향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에 2004년 컨퍼런스의 특징을 보면, 첫째 특허정보의 제공측면에서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검색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각 특허청 및 서비스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둘째 특허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특허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정보 분석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04년 특허청 정보개발담당관실 김태만 과장 발표 모습]



[유럽특허청 담당자와 특허정보 활용시 유의점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

### 컨퍼런스 참가 후 느낀 점은?

이상과 같이 2002년과 2004년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특허 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2002년과 2004년에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졌던 특허정보에 관한 주제가 2002년에는 “특허정보의 검색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2004년에는 “특허정보의 분석에 관한 것”이라고 흑백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국제적인 추세를 가늠하기 위한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 특허정보 검색시스템의 구축은 국제적으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형태로 세계 각국에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특허정보 검색시스템의 구축을 기반으로 특허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특허정보의 발굴 및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솔루션의 개발이 국제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후에도 현재 제공하고 있는 특허검색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해외에 홍보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감각을 지닌 특허정보 전문가의 양성을 통하여 특허정보의 활용 방향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주시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